

The Best Guide Book for Management

# 데이터케이스 리뷰

## DATACASE REVIEW

창간호



데이터케이스 전문가그룹

# 데이터케이스 리뷰를 발간하며

## 국내 최고의 경영솔루션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부터 직원,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까지 크고 작은 연관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외부 경영환경의 복잡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위한 조직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경영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문제는 제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오너, 전문경영인, 임직원,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까지 모두 그들만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영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지고 있고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속도는 더욱 빨라져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은 어떤 공식이나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경영 교과서나 서적, 전문지에서 많은 지식과 트렌드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그 회사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영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하여 누구라도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에 있어서 정답은 없으며,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관한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데이터케이스 리뷰**의 발간은 그 동안 경영전문지의 올바른 방향과 콘텐츠에 대한 수많은 고민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수많은 경영서적과 교과서, 경영전문지는 고전적 이론이나 국내 기업 현실과 다른 해외 트렌드를 강요하기도 하며, 이마저도 학계나 금융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데이터케이스 리뷰의 발간 목적은 경영자, 조직구성원, 경영을 배우려는 학생,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선생님들에게 국내 경영환경에 적합한 경영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경영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야별 현직 전문가와 대학연구실, 여러 경영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case study 콘텐츠를 확보하여 실제 경영현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여기에 담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에서 앞으로 함께 길을 가주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케이스 CEO 김현진

2022.1.24

# Contents

## 데이터케이스 리뷰 창간호

### Publication(Vol.1)

Date 2022.1.24

Writer 데이터케이스 전문가그룹

Editor 데이터케이스 홍보팀

Design 데이터케이스 기획팀

### Concept

1. 경영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다루는 경영종합 콘텐츠 전문지를 지향
2. 담론과 이론보다는 데이터/수치 기반의 객관적 솔루션 지향
3. 기업/조직 내부 문제 Focus
4. CASE+이론+솔루션 기반 콘텐츠 구성
5. 폭넓은 독자층을 위해 쉬운 내용부터 고급수준의 내용을 포괄함

### Contact

[www.datacase.co.kr](http://www.datacase.co.kr)

[manager@datacase.co.kr](mailto:manager@datacase.co.kr)

Mobile 010 3587 6937

Kakao채널 ID 데이터케이스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케이스

Facebook 데이터케이스

데이터케이스Online

### Trend/Issue

## 2022년 국내 경영 불확실성 전망

### Strategy

## 물류대란이 가져 올 산업 생태계 변화와 전략적 의사결정

### Marketing

## 수요예측기법이 시장에서 과연 통할까

### Operation

## ESG경영도입에 따른 운영 변화 필요성

### 조직/HRM

## 2022년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 Accounting/Finance

## 경영환경의 복잡성과 경영교육의 중요성

### Data Analysis

## 데이터를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시대

## 창간호를 마치며